



975호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외대학보



2 버스 운전기사 해직 그 진실은? 6.7 양 배움터 장애인시설점검 9 문학으로 알아보는 인도역사 12 권영찬의 파란만장 인생고백서



인식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로 기존의 휠체어 표지판은 장애인이 휠체어에 기대어 정자세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은 정적이고 무기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장애인이 휠체어 바퀴를 굴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의 역동적인 표지판이 등장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우리학교 장애인 학생들은 혹시 아직도 정적이지 않나 하는 염려에 장애인 시설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 뒷면에 계속
이진형 기자 88matteo@hufs.ac.kr

우리학교 수시 최종 경쟁률 20.96대 1 지원자 수 작년보다 약 1만 명 늘어

우리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총 1837명 모집에 3만 8499명이 지원해 전체 평균 경쟁률이 20.96대 1을 기록했다. 서울배움터는 1073명 모집에 2만 6061명이, 글로벌배움터는 764명 모집에 1만 2438명이 지원했다. 지난 해 수시 지원자가 2만 9091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1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쟁률 상위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로 20명 모집에 1279명이 지원해 6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한국어교육과 52.25대 1, 중국외교통상학부가 51.20대 1, 정치외교학과가 50.85대 1로 뒤를 이었다.
특히 LD학부는 지난 해 21.50대 1의 두 배를 넘어선 4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설된 LT학부도 35.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김천웅 서울배움터 입학관리팀 직원은 “외교관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4년 장학금 등 많은 혜택으로 종합적인 만족도가 높아 가능했던 결과”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해 수시에는 작년에 폐지됐던 학생부교과전형을 재도입해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한다. 이에 대해 박선영 글로벌배움터 입학관리팀장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였다”고 답했다. 또 “이번 해는 전형의 명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외국어특기자 등 교육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박선영 팀장은 입학 경쟁률 상승의 이유로 “대도시, 거점도시에서 간담회를 많이 개최했고 제주도에서 경기 북부까지 전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며 공격적인 홍보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지원율이 30대 1을 넘는 대학도 많다”며 “20대 1의 경쟁률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입학률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자치회비 비율 조정

학생회칙도 전면 개정...29일 추가 논의 예정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통해 자치회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데 이어 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5일 전학대회에서는 자치회비 배분 비율 관련 사항을 마무리지었고 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은 20일 한 차례 논의 끝에 29일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자치회비 비율 조정은 지난 3월 30일부터 계속해서 논의돼오던 사안이다. 학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11000원은 그 동안 교지 대금으로 3000원, 총학생회로 44%,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에 22%, 학부(과) 학생회에 20%, 동아리연합회와 학생복지위원회로 각각 9%와 5% 배분돼왔다. 하지만 이렇듯 고정된 비율로 인해 학부(과) 학생회가 예산 부족을 겪거나 전체 예산 중 80% 이상을 학생회비에 의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왔다. 반면 단대는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교비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학부(과) 학생회의 자치회비 전액을 단대 학생회에서 수령하고, 매학기 개강 후 40일 이내로 단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대와 학부(과) 별 비율을 확정하게 됐다. 과 학생회로는 전체 금액에서 70%를 배분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참석, 전원 동의 시 20% 한도로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어 7월 19일 학생복지위원회가 4%로, 지난 12일에는 동아리연합회가 30일 전제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1.5%를 추후에 감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3일 외대교지편집위원회가 이번 학기 300원을 줄인 2700원을 배분받는다. 이로서 이번 해 하반기 자치회비는 교지 대금 2700원, 총학생회와 단대 학생회가 각각 44%와 43%, 학생복지위원회가 4% 배분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동아리연합회는 우선 9%를 배분받는 뒤 전동대회를 거쳐 1.5%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 한 추후 다시 자치회비를 조정하게 될 경우 이번처럼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도 의결됐다.
한편 학생회칙전부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학생회칙은 이번 해 5월 학생회칙개정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을 시작해 여름방학에 마무리지었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현 학생회칙에 허술한 부분이 많아 총학생회장이 바뀔 때마다 내용 해석이 달라지고 혼선을 빚었다”며 “학생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 혼란이나 예외가 없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바꾸고 오·탈자나 현행 법안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재정·감사운영세칙과 기록물관리세칙, 공간운영세칙 등이 새로 제정되기도 했다. 김범 총학생회장은 특히 기록물관리세칙에 대해 “그간 단대나 총학생회의 자료들이 대부분 없어져 불편을 겪어온만큼 각 단대와 총학생회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제정했다”며 “협의를 통해 역사관에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회칙전부개정안을 통해 총학생회칙 및 세칙들은 모두 합해 이전 152개조에서 449개조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학생회칙은 전학대회에서 수정 발의를 거친 뒤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될 예정이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사 90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9월 1일(월)~10월 8일(수)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10월 8일(수)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0월 11일(토)
합격자 발표일 : 10월 12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3112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학내 브리핑

종료된 서비스 확인하세요

우리학교 san 메일 서비스 및 무료 국제전화서비스가 종료된다. 글로벌배움터는 hufs.ac.kr과 별도로 서버를 두고 san.hufs.ac.kr 계정으로 메일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현재 san 메일 계정은 사용자가 없고 보조메일로만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서버의 노후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an 메일 서비스는 10월 13일부터 종료된다.

또 정보지원처는 2007년 11월부터 42개국과 1개 도시의 관계사와 협정을 맺어 양 배움터 사무실, 기숙사 등에 무료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합력회사(보피아)가 국내 사업에서 철수해 9월부터 무료 국제전화이용이 불가능하다.

도서관 웹서비스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9월 30일까지의 시범 서비스 후 10월 1일에 정식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증가한 추세를 반영해 도입됐으며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도서관 소장 자료 및 학술자료 검색 △자료 대출내역 조회 및 연장 △대출자료 반납예정일 및 연체·예약자료 등에 대한 알림 △희망도서신청 및 처리과정 조회 △게시판 조회 △바코드/QR코드 스캔 △교외에서의 전자자료 이용 등이 있다.

당신을 인문학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 '제 7회 총장배 인문학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의 에세이 주제는 '인간의 욕망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이다. 2~3인으로 구성된 팀이 에세이를 접수하면 예선심사로 32팀을 선발해 CEDA토론방식으로 토너먼트식 경기가 진행된다. 우승한 3팀에게는 각각 총장 직인의 상장과 상금 60만원, 30만원, 10만원을 시상한다. 참가신청은 10월 12일까지이며 blog.naver.com/hufsdebate에서 신청서 작성 후 hufshdc@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팀당 3만원이며 예선 탈락 시 90% 환불된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하길 바란다.

버스 운전기사 해고

2014년 2학기의 시작과 함께 글로벌배움터 내 버스를 여러 개의 회사가 나눠 각자의 부문을 관리하고 운행하던 체계에서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이뤄졌다. 그에 따라 기존 교내에서 근무하던 버스 운전기사들의 업무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해직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기사에선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해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양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전까진 △나이스 관광 △동원안전관리시스템(이하 동원) △동영 관광으로 총 세 개의 회사에서 나눠 학교의 버스를 관리하던 체계였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되며 버스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스 관광으로 통합돼 관리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이 통합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동원 소속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세 명의 기사가 해직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고용 형태에 대한 구체적 사정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여부 △이직 후 변경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있다.

◆왜 이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어야 하나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현재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원칙을 따르면 학교가 버스 업체의 업무 관련 사항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기사들을 실제로 고용한 것은 학교가 아닌 위의 △나이스 관광 △동원 △동영 관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달리 우리학교는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다. 동원 소속 기사였던 유봉열 씨는 "명목 상 나를 고용한 회사는 동원이었지만, 사실상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지시한 것은 학교기에 학교가 실질적인 사용자였다"고 전했다. 이 점이 바로 이번 해고 문제를 학교와 근로자 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시간?

버스 관리 업체가 하나로 통합되며 학교 측은 다른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나이스 관광으로의 이직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직 조건으로 학교 소유 자가용 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던 '버스운전자격증'을 요구한 것이었다.

버스운전자격증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 자격제도에 의거,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이다. 동원 소속일 때는 운전하는 버스가 사업용 버스가 아닌 학교 소유 버스였기에 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으나, 소속을 옮기게 되자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해진 것이다.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우선 전화 또는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성검사에 해당되는 '운전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자격증 취득 시험 지원이 가능하고, 일정에 맞춰 시험을 본 뒤 합격하게 되면 발급 신청을 해 자격증을 수령하게 된다.

이 절차에 대해 학교 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버스관리 업체를 통합하기 전에 나이스 관광에서 학교와 직원들에게 이직 권고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에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실제로 다른 기사들 중에는 면허를 취득해서 이전까지 일하던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유감

판단 당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 ”

하지만 이에 대해 유 씨는 "업체 측에서 이직을 권고한 때는 사실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반박했다. 학교에서 관련 공문을 7월 14일에 받았으나, 유 씨는 그 기간 중에도 학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자격증 시험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유 씨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줬다면 얼마든지 자격증을 취득해 이직할 수 있었을 텐데 업무 시간도 조정해주지 않고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특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고 학교 측에서 언급한 기사는 이전에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며 학교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유 씨가 나이스 관광으로 이직하지 않고 동원 소속으로 남아있자, 동원 측은 그를 청소년동자로 발령했다. 이는 34년간 운전만 해온 유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유 씨는 "버스 운영 회사가 통합되고 18일 정도 일을 하지 못했는데, 청소를 하는 것도 거부하자 동원은 해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직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변화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 변동이다. 유 씨는 "이전에 동원 소속이었을 때는 임금이 월 200만원 정도였지만 나이스 관광은 이직을 할 경우 월 120만원 정도로 감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학교로 이직 전과 동일하고, 하던 업무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감봉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활과 직결되는 큰 액수의 임금 차 외에도 그가 이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업무 강도다. 유 씨는 "이전까지는 주말 근무가 없었는데 이직을 할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강해진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임금 삭감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나이스 관광으로부터 보고 받은 액수는 월 18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근로조건에는 주말 근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이 바뀐다고 인정하면서도 임금 변동 폭에 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해직, 왜 문제가 된 걸까?

이번 버스 기사 해직 사건이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시기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직된 기사들은 201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학교가 교내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 만료일보다 한 학기 일찍 버스 제도를 개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이 큰 비용을 줄여주지도 않을 텐데 한 학기만 늦춰달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해직된 기사들의 항방

이번 버스 관리 업체 통합 과정에서 해고 절차를 밟게 된 기사는 유 씨 외에 두 명이 더 있다. 이 중 한 명은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업체에 취직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원 소속으로 함께 일하던 유 씨와 이지우 씨는 아직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어 특별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유 씨는 "계속 운전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 다른 업체에 취직하려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로 유명하다"며 "학교 측에서 근로자들의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 서로 상부상조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아간) 201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14. 10. 06(월) ~ 10. 17(금)	2014. 11. 24(월) ~ 12. 05(금)
고사장 발표	10. 30(목) 15:00	12. 18(목) 15:00
면접전형	11. 01(토) 09:30	12. 20(토) 09:30
합격자 발표	11. 17(월) 15:00	2015. 01. 05(월)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1. 17(월)~11. 21(금)	2015. 01. 05(월)~01. 09(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행정) 나. 언론홍보영상학과(광고홍보, 신문방송)
다.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면접시험에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특전
 - 공무원, 언론인, 군인 현직자 중 입학성적우수자, 직급별 차등 지급
 - 본교(사이버한국외대 포함) 출신 성적우수자(평점 3.5이상) 장학금 지급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hufs.ac.kr/user/gspss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9,3567 FAX. 02-2173-3358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한강 위의 축제, 세계민속문화축전



▲ 폴란드어과 전통무용학회 마주르카의 공연

9월 20일 서울시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제 24회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개최됐다.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세민전은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고자 시작됐다. 세민전은 1971년에 시작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배움터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매년 우리학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공연팀이 오디션을 통해 선발돼 수준 높은 무대를 자랑한다.

김인철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세민전은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진행됐다. 축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계 문화 체험 부스, 오후 3시 반부터 4시까지 다양한 전통 의상을 볼 수 있는 세계 의상 퍼레이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계 민속 춤 공연 세 부

분으로 구성됐다.

글로벌배움터 각 학과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부스에서 아프리카학부는 점술, 타투, 우크라이나어과는 각테일 시음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세민전의 하이라이트인 세계 민속 춤 공연에는 학회 연합 서풍연과 동아리 한알로 구성된 한국팀과 아르모니아, 로스 호베네스 등 16개의 학회가 참여했다. 이번 공연에서 루마니아어과의 노래학회 '노고봉'은 과거 인기 음반이었던 가수 현영의 '누나의 꿈' 원곡인 O-zone의 'Dragostea Din Tei'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영어통번역학부의 뮤지컬 학회 '팬터지', 아랍어통번역학과 춤 학회인 '오아시스'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김인철 총장은 "세민전을 통해 세계를 향

한 꿈을 키우고 외대인의 자랑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건희(통번역·아랍어 13) 세계민속문화축전 준비위원장은 "세민전은 여러 나라의 춤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축제이므로 외대인의 자긍심이다"라고 전했다.

세민전 본 공연에 참여한 유지희(통번역·스페인어 13)양은 "공연에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관람해서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조성빈(국제지역·러시아 13)군은 "흥미로운 공연과 축제 열기로 모든 학생들이 하나 된 모습이 보기 좋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글로벌배움터 가을대동제 홈스티벌(HUFStival)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학과 부스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홍보하고 있다.



▲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에 설치된 학과별 부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 축제 셋째 날 소운동장에서 열린 '워터페스티벌'에서 한 학생이 신나게 미끄러짐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글로벌배움터에서 '홈스티벌'이 열렸다. "첫 축제에 대한 기대가 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입생인 이정협(국제지역·브라질 14) 군이 본격적인 축제 시작 전 기대감을 드러냈다.

축제 기간 동안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에는 학과별 부스가 설치돼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또한 스피리마켓 △힙합페스티벌 △FBS가요제 △워터페스티벌 △DJ페스티벌 등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돼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학과 부스에서는 각 학과의 대표음식을 판매했는데 특히 일본어통번역학과의 다코야키와 러시아학과의 양고기 부스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어통번역학과

부스에서 팍을 흘리며 소시지를 굽던 이경호(통번역·독일어 14) 군은 "독일의 대표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를 준비했는데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 정광호(공과·전자 09) 군은 "와플 판매는 우리 학과의 전통"이라며 "축제로 선�후배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더욱 두터워 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축제 둘째 날에는 노천극장에서 '제 29회 FBS가요제'가 열렸다. 황상원, 이슬남매, 더블제이 등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후보들이 본선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글로벌배움터 대표 공연동아리인 슬랩업과 외비가디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는 더욱 절정에 다다랐다. 축제의 열기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셋째 날에는 소운동장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워터페스티벌'

이 열렸다. 백년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이번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된 듯 했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축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며 아쉬워했다. 김진명(공과·디지털정보 14) 군은 "안내 팸플릿에는 큰 제목 정도만 기재되었고 자세한 정보가 부족해 흥미를 갖지 못한 행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축제의 준비를 맡았던 박원일(국제지역·프랑스 11) 중앙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이번 축제로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가 풀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통학버스 한 번 이용해보시겠어요? 심야버스, 강남역 노선 신설 등 많은 변화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의 더 편한 통학을 위해 △노선 변경 △차량 배치 변경 △통학버스 간 환승제도 등 통학버스 제도가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심야 통학버스'를 신설해 늦은 시간에도 통학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천호역에서 출발해 학교까지 오던 천호-모현 노선이 잠실에서 출발하고 천호역을 거쳐 모현에 도착하는 잠실-모현 노선으로 바뀌었다. 이는 잠실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 신설됐다. 한편 하교 시에는 모현에서 출발해 천호까지만 운행한다. 하교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쳐 천호에서 잠실까지 교통 체증이 심해 비효율적이라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했다.

또한 글로벌배움터에서 서현역, 양재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가는 모현-강남 노선이 신설됐다. 이 노선은 하교 시간에만 운영되는 노선으로 다른 통학버스들과 마찬가지로 5시 50분에 출발한다. 이 또한 강남역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통학버스 간 환승 제도가 생겼다. 특정 노선에서 학생들이 몰려 타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빈 자리가 많은 노선의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리가 없어 오랜 시간 서서 가는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앉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학생들을 위해서 심야 통학버스는 저녁 10시 50분에 글로벌배움터에서 출발해 죽전역에 11시 2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죽전역에서 탈 수 있는 분당선 지하철 막차가 11시 30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해졌다.

이번 심야 통학버스는 오랜 시간 학생들이 바라오던 사항이었기에 대부분의 학생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규(공대·디지털정보 11) 군은 "막차가 너무 빨리 끊겨서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많다"며 "심야 버스가 생기면 앞으로 막차를 걱정할 필요 없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표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자신을 브랜드화 하라" Creative · Power · Global MBA 2015 전기 신입생 모집

- 모집 과정 Creative MBA(주간) :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Power MBA(야간) : 경영학과 Power ifMBA(온라인) : 국제금융학과 Global MBA(주말) : 경영학 + 지역학

- 과정의 특징
 - ▶ 한국외대출신 동문 장학금(학부성적 3.30이상, 재학 중 1회 100만원)
 - ▶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는 CEO의 특강을 매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
 - ▶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강
 - ▶ 글로벌 CEO 해외과정 동문회초청 세미나(구글 본사, 동문기업 등 방문)
 - ▶ 글로벌 CEO 해외과정 동문회초청 세미나(구글 본사, 동문기업 등 방문)
- ▶ 국내 · 외 CEO과정 동문과의 교류행사 등 막강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 ▶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최초의 마케팅학과 개설
- ▶ 1:1 담임 교수제 (Academic Personal Advisor)
- ▶ 주간, 야간, 온라인, 주말과정의 상호 보완적이며 탄력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 ▶ MBA 인재뱅크제도, 인턴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형전형	원서접수		면접일	
	특별전형	2014. 10. 27(월) ~ 11. 12(수)	일반전형	2014. 11. 22(토)

* 자세한 사항은 <http://biz.hufs.ac.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Creative MBA(주간,주말) : 02-2173-2399 ▶ Power MBA(야간) : 02-2173-2408 ▶ Power ifMBA(온라인) : 02-725-0085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여러분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한국외대 Creative · Power · Global MBA과정에서 만나보십시오"

아직은 성장해야 할 백년관 개선해야 할 문제점



▲ 학생들이 소규모 행사를 위해 백년관 11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를 대여하려면 전기세와 냉·난방 비용으로 시간 당 8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백년관 개관 이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백년관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불편한 이동 △공간 대여의 어려움 △안내도 부재 등이다.

백년관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은 학생과 교직원의 고민거리가 됐다. 글로벌 배움터는 면적이 넓어 각 건물 간 이동 거리가 긴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백년관은 다른 건물과의 간격이 특히 멀다. 학생과 교·강사가 강의 사이에 주어진 10분 동안 다른 건물에 있는 강의실까지 이동해야 할 경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힘들 정도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내순환버스(이하 뺑차)의 시간 엄수와 시간표 조정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총괄지원팀 측은 “버스 운행 업체와 논의를 통해 이제까지 잘 지켜지지 않던 뺑차 시간표를 앞으로 엄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뺑차 운행 시간표를 정해서 학교 측에 제안하면 학교 실정에 맞춰 수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내부 공간을 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 부족 △과다한 비용 △오후 9시 이후 사용불가 방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 정보 부족은 총괄지원팀 측에서 글로벌배움터 내에 학생위원회를 조직해 구체적인 대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 9시 이후 출입통제 또한 비상대책위원장과 총장의 논의 결과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에 관해서 총괄지원팀 측은 “교내 대규모 공식 행사에는 무료로 대여해주지만 교내 소규모 행사나 외부 행사는 전기세와 냉·난방비 등 시설 유지비용을 받는다”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 학교와 비교해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안내도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으나 이는 곧 설치될 예정이다. 백년관은 다른 건물에 비해 시설도 다양하고 구조도 복잡해 안내도가 꼭 필요한 건물이었으나 개관 후 3주가 넘도록 공간 안내도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총괄지원팀 측은 “백년관 내 시설이 많이 바뀌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곧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전 백년관 사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여행, 터키항공 이용해보세요

터키항공이 우리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해 항공권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서비스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우리학교와 터키항공이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2015년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

우선 항공권의 경우 좌석의 클래스 별로 최소 3%부터 최대 1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갈 경우 최소 101만8천5백원, 터키 다른 공항까지는 119만3천1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해 런던이나 파리까지 갈 경우 최소 85만 5천원, 로마까지는 9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터키항공은 비즈니스석의 경우 기존 30kg에서 50kg, 이코노미의 경우 기존 25kg에서 40kg의 수화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더해 여정을 변경하거나 재예약도 추가 금액 없이 가능하며 환불 수수료도 100유로로 할인해주고 있다. 여행 중 이스탄불을

경유할 경우 스톱오버(단기 체류)와 이스탄불 시티투어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답항공(02-733-0806), 모두투어(02-2049-3423), 드래곤 플라이 투어(070-7506-7646), 원일항공(02-723-5727)에서 발급해야 한다.

터키항공은 현재 전세계 105개국, 257개 이상의 취항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스탄불을 경유할 때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커넥션 타임(Connection time)이 평균 2시간 반으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셀림 비나틀리(Selim Binatli) 터키항공 서울지점장은 이러한 혜택에 대해 “이를 발판 삼아 더 많은 업무적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터키나 유럽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글로벌배움터 자정 이후 출입 제한... 누구를 위한 통제?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배움터 도서관, 학생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자정 이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이전 학기까지 글로벌배움터의 건물들은 24시간 개방됐었다.

학교 측에서는 출입통제 이유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과 이로 인한 도난, 안전 문제를 들었다. 애초 오후 10시 이후 출입을 통제 하겠다고 했지만 자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인문대 학생회장은 “도서관과 학생회관은 24시간 개방하지만 인문경상대학은 도서관과 거리가 멀어 해당 단대 학생들이 인문경상대 열람실을 많이 이용한다”며 학생들의 사정을 전했다. 이어 “건물 출입 통제로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제 이후 각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를 이용하거나 비상출입 버튼을 눌러야 한다. 현

재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에게만 출입카드가 발급된 상태다. 이에 이선환(동유럽·루마니아어 10) 동유럽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위한 건물인데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학생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을 학교 측에 제안했지만 비용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에도 배준형 글로벌배움터 총괄지원팀 대리는 “비상 상황에만 학생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시험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출입 통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우리학교 GTEP 사업단, 중국에 4만 달러 수출 계약 예비 무역 전문가들의 활동 돋보여



▲ 하얼빈 국제 농수산물 전시회에 참여한 GTEP 학생들의 모습이다.

우리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하얼빈 국제 농수산물 전시회(Agriculture & Food Expo Harbin 2014)에 참여해 약 4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얼빈 국제 농수산물 전시회는 중국 동북지역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주류, 식품, 식품 원료 등이 출품됐다.

GTEP은 국내 기업인 담당학과와 협력해 이번 전시회에서 5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파견된 학생들은 직접 업체 부스 디자인,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 상품에 대한 설명, 상품 판매 등의 일을 맡았다. 이를 통해 현장 샘플 판매와 함께 약 4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

전시회에 참가한 공희원(통번역·영어 12) 학생은 “해외전시회를 학생들끼리 참가한다는 것은 대학생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며 “우리 스스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뿌듯하고 사업단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GTEP 사업단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프로그램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한다. △이론교육 △실무지식 △현장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며 현장적응형 실무 무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백재승 국제금융학부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해 32여명의 재학생이 활동하고 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외국어연수평가원 내부 리모델링 완공 외부는 9월 30일 완공 예정



▲ 외국어연수평가원에는 깔끔한 디자인에 편리성까지 겸비한 유리침판을 들여놓았다.

서울배움터 외국어연수평가원의 내부 리모델링을 완공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한 이 공사는 아직 외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9월 30일에 외부 리모델링을 끝으로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외국어연수평가원은 1977년에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외벽과 내부 시설이 낡아 이전부터 이용자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외벽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

는 민원과 옥상에서 빗물이 샌다는 의견, 그리고 화장실이 건물 중앙에 배치되어 건물 전체에 냄새가 심하다는 불평이 많았다. 이에 따라 △외벽 단열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위주로 △강의실 개선 공사 △화장실 전체 공사 △배관공사 △냉난방 교체공사 등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5층의 기숙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15개의 강의실을 확보하여 더 많은 외부인들이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연수평가원 리모델링에 대해 김재준 건설기획팀 팀장은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우리학교 학생들보다는 외부인들의 이용이 많아 교육보다는 사업의 목적이 크다”며 “이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강의실 수도 이전보다 늘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외부 리모델링에만 신경 쓴 이전의 건물들과 달리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외부보다 내부 시설에 집중해 실적을 다졌다”며 이번 리모델링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우리학교 장애인 편의

서울배움터 점검

◆ 쾌양호한 서울배움터 장애 편의 시설

서울배움터에 현재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수는 총 5명이다. 이 중 3명은 지체장애, 1명은 뇌경변장애, 1명은 시각장애인이다.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마련돼 있을까?

서울배움터는 학교 규모가 작고 큰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형이라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편안한 배움터다. 그리고 꽤 많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춰놓고 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하면 대개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라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 말단부에 있는 경사로, 승강기 벽면 손잡이 즈음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조작판, 승강기 음성 안내 등이 모두 장애인 편의 시설이다. 우리학교 구석구석에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에서부터 학교 내부로 이어지는 점자블록이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표시가 돼 있다. 그리고 모든 건물마다 휠체어가 출입하기 쉽게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보행동선의 대기점, 목적지점 혹은 위험 지역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점형블록이 있다. 또한 넓은 공간의 장애인 화장실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정수기, 열람실을 갖추고 있다. 학생식당, 강당에 장애인 전용석이 구비돼 있고, 국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호실을 기록한 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도서관에는 휠체어 전용 출입구가 따로 마련돼 있고 확대경과 점자 키보드를 갖춰 장애인 학생이라도 독서를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국제학사, 법학관, 본관, 도서관, 미네르바 콤플렉스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본관 1층 장애인 화장실에는 몸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전자식 변기가 있어 불일을 보고 일어나면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물이 내려간다. 기숙사에는 장애인 전용 객실 6개가 마련했고 법적으로 전체 주차 공간의 3%를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도 28% 정도 확보했다.

다만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흠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국제학사, 법학관, 본관, 미네르바 콤플렉스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신식 건물이다. 하지만 이외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삼십년 가까이 훌쩍 넘은 노후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

◆ 이러한 편의 시설, 외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서울배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2회 연속(2008, 2011년도)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장애인 학생이 1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192개의 대학에 대해 특별전형, 교수·학술, 시설·설비 등 3개 영역별로 평가를 진행한다. 대학들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대학, 우수 대학, 보통 대학, 개선요망 대학 4단계로 나뉘지게 된다. 서울배움터는 전체 대학교 우수사례로 발표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자랑한다. 이번 2014년에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2015년 초에 발표될 계획이다.

◆ 장애인 학생들에게 편의 서비스도 제공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복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도우미 학생을 뽑아 몸이 아픈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와 협력해 다른 학우들보다 우선적으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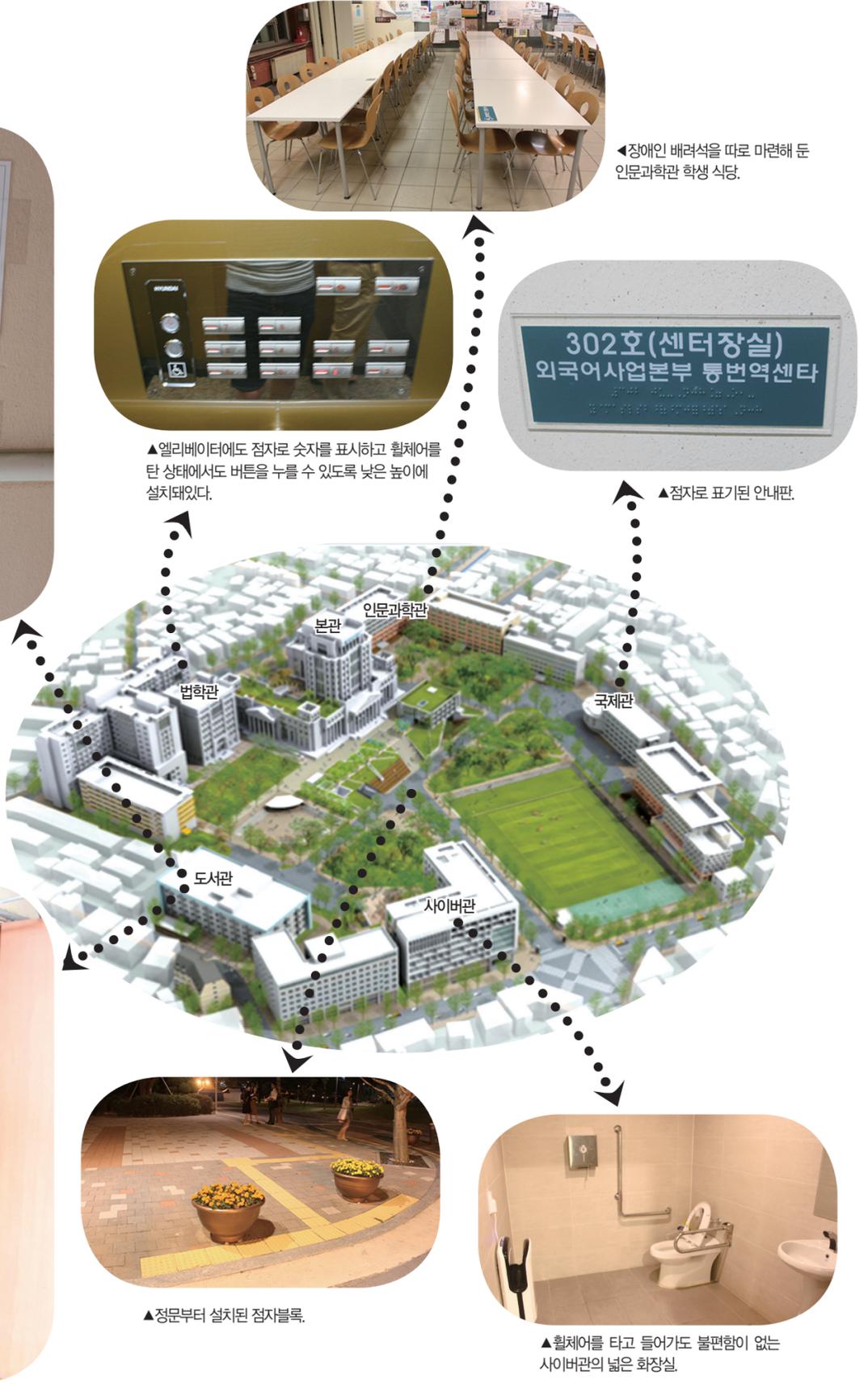


▲장애학생이 인터폰을 누르고 들어간다.



▲휠체어 전용 도서관 출입구.

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학종지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이 고층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게 돼 불편함을 겪게 될 경우 강의실 변경 신청을 통해 1층으로 옮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일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면 교수의 허락 하에 현장 강의 대신 사이버강의로 수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장애인 학생이 필기가 어려워 대필을 해줄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조교를 통해 담당 교수에게 배려를 부탁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한다. 김미자 학종지 팀장은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장애인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보다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우리학교, 불편하진 않을까?

김현용(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번역전공 13)씨는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실제로 우리학교를 다니며 느끼는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또 현재 서울배움터 학교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김 씨는 시설에 대한 문제를 들었다. 그는 시각장애인용 하얀 지팡이를 짚어가며 길을 걷는다. 그러나 정문부터 강의를 듣는 국제관까지 점자 보도블록이 끊겨 있어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통번역대학원에는 강의실 문마다 점자로 몇 호실인지 표기가 돼 있지만 이는 김 씨가 입학 후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해결해주시기보다는 몸이 어떻게 불편한 학생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하나하나 맞춰가려는 식에 가깝다"고 불만을 표했다.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김 씨는 이번 학기 기숙사 1인실을 배

정받고 싶었지만 절차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미리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씨는 그를 도와주는 학생과 함께 2인실에서 살고 있다. 그는 "다른 대학에서 학부 생활을 할 때는 매 학기 수강 신청을 할 때 장애인 학생이 먼저 듣고자 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제도가 대학원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한 번역을 전공하고 있는 김 씨는 책을 읽기 위해 책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옮겨, 기계가 텍스트를 읽어주는 소리로 내용을 듣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글씨를 매우 잘 인식할 수 있는 고급 스캐너가 필요해 학교에 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는 이뤄지지 않아 김 씨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마다 필요한 시설이 다르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같이 불편한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블록이나 고급스캐너 등 눈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시설 없이 근로 학생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

시설은 안녕하십니까?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길이 끊길 경우 동그란 무늬의 블록이 있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호실 점자 안내가 없다.



▲일반 화장실 칸과 같은 크기의 장애인 화장실 칸.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이다.



▲글로벌배움터 교양관 계단. 짐고 걸을 수 있는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넓고 경사진 글로벌배움터



▲글로벌배움터 도서관 계단.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가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 배려석 팻말이 식탁 너머에 나뒀다.



▲기숙사 건물 앞. 길을 안내 해 줄 점자블록이 없다.



▲기숙사 식당. 장애인 배려석이 없다.



▲기숙사 건물 앞. 길을 안내 해 줄 점자블록이 없다.



다. 학생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교내에 학생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운영은 되고 있으나 휠체어 경사로, 음성 알람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다.

◆글로벌캠퍼스 장애인시설 점검

글로벌배움터는 서울배움터와 마찬가지로 외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정문부터 기숙사까지 올라오는 길에는 아예 이러한 블록이 없다. 기숙사에서부터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 건물까지 이 블록이 설치되는 데있지만 블록이 끊어져 있어 오히려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길이 끊기거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를 알리는 동그란 무늬의 점자블록이 깔려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경사도가 모든 건물에 다 설치돼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어문관에서는 경사도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글로벌배움터에는 학교 건물 안과 밖에 유난히 계단이 많다. 교내에 이렇게 계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기숙사 하나 뿐이다. 지체장애인도 계단 탓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부분 계단의 방향이 일직선이 아니라 굴절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손잡이 없이는 올라가기도 어렵다.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칸이 있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문의 크기가 턱없이 작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에게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어문관과 후생관 학생식당에는 장애인 배려석이 있지만 그 외의 학생식당에는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 배려석에도 장애인 배려석이라고 쓰인 팻말 하나만 식탁에 나뒀다.

◆시설 외에 주어지는 지원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는 관계 없이, 일반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찾아와 장애 학생도우미 신청을 하면 일반 학생은 근로 학생으로 도우미장 학급을 받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학생은 그 학생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습 보조 시설의 경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보조공학기가 있다. 이 기기는 교수학습개발원, 도서관, 디지털서비스팀 등에서 장애 학생들에게만 대여를 하고 있다. 그 외에 장애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미리 수강표를 받아 일반학생들의 수강신청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대신 신청을 도와준다. 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나 경력개발센터에 상담 지원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장애 노출을 꺼리기도 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글로벌배움터에는 현재 시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8명으로 총 11명의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더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을 받도록 장려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외관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배움터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불편을 숨기며 공부하고 있을지 모른다.

학우지원센터와 대학원이 잘 연결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혼자 해결해야 해 평소 많은 불편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장애학우지원센터가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해외파견 학생들까지 몸이 불편하다면 모두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문제보다 김 군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사람들의 인식 부재였다. 김 군은 지난 해 입학했지만 아직까지 혼자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식권도 무인 자판기로 발급해야 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배식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는 배식은 간단한 일인데도 도우미 학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줘야겠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교직원조차도 몸이 불편한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식당에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 장애가 있는 학우를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훨씬 편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강의계획서에 장애학우 지원에 대한 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글로벌배움터 점검

◆“제 아들 입학시키기 힘들겠네요”

이번해 4월, 이윤진(국제지역·러시아 12)양은 글로벌배움터에서 외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시험에서 감독을 보다가 장애가 있는 한 수험생의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이 양에게 수험생의 어머니는 ‘이름 없는 학교도 아니고 이 정도 유명한 학교라면 장애인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줄 알았다며 우리 학교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 시험장에 몸이 불편한 학생은 그 학생 뿐만이 아니었다. 이 양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글로벌배움터로 찾아온 세 명의 학생들이 모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체장애인이라 시험이 치러지는 4층까지 부모님들이 휠체어와 시험에 학생을 안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힘들어보였다고 했다.

이 양이 감독했던 영어 시험은 글로벌배움터 교양관에서 진행됐다. 교양관은 5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계단이 많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장애인 시설 문제를 장애 학우의 어머니에게 들으며 이 양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사지고 넓은 캠퍼스

글로벌배움터는 넓은 면적 탓에 건물 간의 거리가 멀고, 왕산을 따라 지어져 지형적 특성 상 경사가 져 있다. 건장한 일반 학생들도 캠퍼스를 오가며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경사지고 넓은 캠퍼스를 몸이 불편한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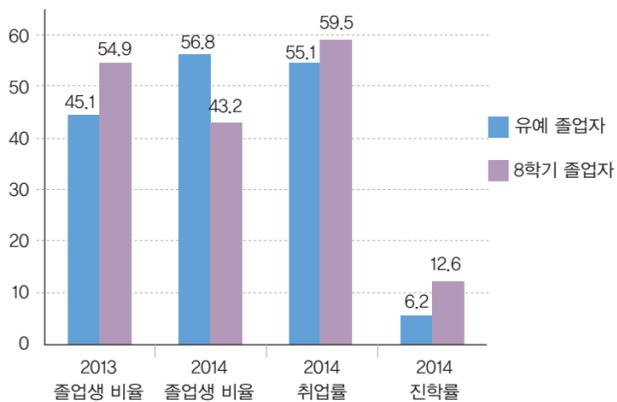
경력개발센터에서 듣는 우리학교 맞춤형 취업이야기

서울배움터
김현숙 경력개발센터 팀장

◆우리학교 취업 결과분석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 전국 대학 졸업생들의 6월 1일자 취업현황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조사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매 해 공시하고 있다. 이번 해 취업률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졸업생 취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처음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4년제 대학을 앞질러, 4년제 지방대 취업률 55.1%로 수도권 대학 54.3%보다 0.8%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역시 전년보다 0.8% 하락한 54.8%를 나타냈다. 이번 해 본분교 통합에 따라 우리학교는 재학생 3천명 이상의 대형대학인 "가"그룹 대학 중 11위인 54.2%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으나, 취업의 질이 아닌 취업률로 평가하는 현재 취업률 시스템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0.6% 낮게 나타났다.

2014년 서울배움터 취업통계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여학생 졸업자 및 졸업유예 후 졸업생 증가다. 2014년 졸업생 중 남학생은 47.4%, 여학생은 52.6%를 차지한다. 이 중 남학생의 취업률은 63.3%, 여학생 취업률은 50.9%로 여학생 취업의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또한 2013년 취업통계조사대상자 중 8학기 졸업생이 54.9%, 졸업유예 후 졸업생이 45.1%였던 것에 비해, 이번 해 졸업유예 후 졸업생 56.8%, 8학기 졸업생 43.2%로 졸업유예 후 졸업생의 비율이 급증했다. 취업률에 있어서는 졸업유예 후 졸업자가 취업률 55.1%, 8학기 졸업생가 취업률 59.5%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보다 8학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경력개발센터에서는 매 해 졸업 후 6개월~1년 이내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대학 및 학과별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이 궁금한 학생들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우리학교 유예 졸업자·8학기 졸업자들의비율과 취업률 진학률을 보여준다.

◆우리학교 취업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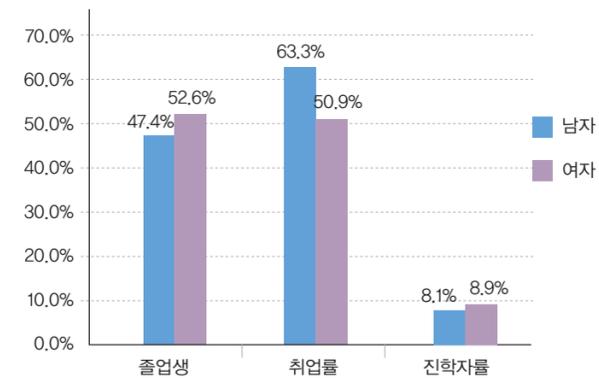
우리학교 이공계열 및 일부 특수언어학과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전공생 취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영업, 마케팅, 경영지원 직무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과 대부분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이 해외영업직에 독보적으로 많이 진출했기에 선배들의 영향으로 해외영업 관련 직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글로벌경영학과, 영어학부, 법학과, 사범대처럼 모두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라도 공채시준이 되면 같은 회사, 같은 직무를 지원하고, 실제로 입사하고 있다. 즉, 우리학교 인문계열전공 학생들 모두가 취업경쟁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 기업의 투자 환경에 따라 특수외국어 전공자에 대한 수요 변화도 많다. 최근 기업들은 적도 아래 지역,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베트남어과, 마인어과, 스페인어과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더해, 기업들은 어학 전공을 기본으로 경영학적 마인드를 겸비한 우리학교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갖춘 언어능력 보유자라면 매우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전체 학생 중 약 70%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취업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전공+외국어+실무지식+인턴십'을 재학생 때 준비한다면 더 수월하게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업트렌드 "대졸신입 공채 규모 축소, 이공계 우대, 인문계 상시채용 및 경력직 선호 경향"

이 세 가지가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기업 채용의 키워드일 것이다. 하반기 채용 공채가 진행되는 요즘,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25개 계열사 중 6개 회사가 인문계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해 현대차그룹 2,450명 모집 공채에 15만명이 지원하고,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신입 공채를 지난 해보다 줄인다는 등의 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 우리학교 졸업생 비율·취업률·진학률의 남·여 비율을 보여준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 해 대기업 공채가 진행될 무렵 4학년 2학기를 맞이하고 경력개발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늘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우수한 학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진로가 정하지 못하였고,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일단 취업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한다. 하지만 회사나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막막해하는 학생들의 한결같은 질문이다.

"이공계는 대졸 신입사원으로 선발하고, 인문계는 역량이 검증된 경력사원 중심으로 뽑고 있어 신입직원을 뽑아도 한두명정도인데... 우수한 외국어 능력이 강점이긴 하지만, 이 직무에 꼭 외대생을 뽑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캠프 모의면접에 참여하는 대기업 인사팀장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능력과 우수성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경영지원(기획, 인사), 홍보, 마케팅, 교육 등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모의면접을 해보면 직무에 대한 이해나 준비도가 흡족한 수준이 아니어서 선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들곤 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낸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취업합격통지서를 10개를 받든 1개를 받든, 내가 근무할 곳은 한곳이라는 점. 그리고 취업에 빨리 성공한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에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조직에 입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취업'이 아닌, 내가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잘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 일'이 있는 '내 일'을 꾸꾸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졸업하게 되길 희망한다.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이용>

- 진로 - 취업 1:1 상담 :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신청(매주 수요일 5시 예약 오픈)
- 전·현직 외부취업전문가들의 1:1 원스톱 취업컨설팅(학기중 3개월 운영)
- 취업특강(자기소개서작성법, 면접특강, 취업전략 등 상시)
- 직무교육(방학 중 직무별 교육)
- 모의면접
- 진로특강
- 취업박람회
- 교내에 방문하는 기업 채용 상담 및 채용설명회 적극 활용(채용규모, 채용배수, 문이과 비율, 인적성필기시험 유형과 전략, 사내복지, 문화, 연봉, 직무정보, 회사의 중장기 발전 계획, 채용설명회 참가 가산점 부여 등 직접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

5분심포

임정혁 기자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다

이번호에선 한창 화제인 영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의 삽입곡 '로스트 스타즈(Lost Stars)'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음악'과 '사랑'이란 두 단어로 요약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을 쓰며 영화의 맥락보다 음악의 가사에 초점을 맞춰 노래를 들었다.

이 곡을 정리하자면 '인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젊은이들의 방향을 이해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란 원인과 결과를 따져 그 원인과 효과를 알아보는 이해가 아니라, 방향하는 이의 답답한 심정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함께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해다.

이 곡은 젊은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한다. 'God, give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하나님, 왜 젊은이에게 청춘을 주는 것이 낭비인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까지 하게 됐을까.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답답함 뿐 아니라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막막함이 당장 내 일처럼 느껴진다.

그리곤 이런 젊은이들을 방향하기 시작한 양에 비유한다.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이제 사냥철이 다가왔고 양들은 의미를 찾아 달려간다'

합니다). 여기서 사냥철은 청춘의 시기를 이야기한다. 지금까지는 그저 어린 양으로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맹수 같은 사회에 쫓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젊은 시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마냥 쫓기기만 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보인다.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그래도 우리 어둠을 밝히려 노력하는 길 잃은 별들인가요?)' 마지막 구절에서 젊은이들은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된다. 비록 지금은 길을 잃어서 방향할지 모르나, 방향 속에서 의미를 찾고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앞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별이 되는 것이다.

아직은 어느 길로 가야할지 모르는 시기가 바로 청춘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방향하게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곡은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혹, 아직 청춘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의 방향에 불안해하지 말고 방향을 잡고 일어서길 바란다. 이러한 방향은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고 길을 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시작점이다.

언(語)빌리버블

유다승 기자

국방의 남녀평등

최근 군대에서의 생활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 MBC "진짜사나이"의 여군 특집이 화제다. 여군 특집 편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고, 관련 동영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등 여자 군인으로 성공을 보여줬다. "여자도 군대에 가네?"라는 생각. 아마도 흔하지 않은 여자 군인의 등장이 이번 진짜사나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민개병제의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군에 의무적으로 징집돼 1년 9개월의 청춘을 군대에 쓴다. 헌법에는 덧붙여 누구든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남성들만 청춘의 긴 시간을 원치 않는 삶을 보내며 사회에서의 자기발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가 아닌지를 생각해볼 수 없다.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건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완력으로만 따진다면 남자보다 강한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애초 군에 가야하는 대상을 '강한 사람'으로 지정해야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몸이 약한 남자는 군 복무 만큼의 시간을 공익근무로 대신해 최소한



사진 MBC '진짜사나이' 캡처

의 의무를 다하는데, 여자는 특별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군 대체복무도 하지 않는다. 필자의 친구는 유치원에서 공익근무를 한다. 또 남성들의 군복무는 여성의 임신과 비교되기도 한다. 여자는 임신을 하며 남자와 다르게 희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자보고 임신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국가 행정적 문제와 생물학적 문제를 비교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군대에 간다.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여성만 군대에 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한다. 남녀평등으로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들은 군복무 문제에 관해선 '난 여자니까'라고 묵인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여성에게는 권리로 남았다. 약하다는 이유로 면제권을 얻는 것은 어쩌면 여성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인도 문학으로 보는 인도의 역사

우리학교 인도어과 김우조교수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 세계 7위의 면적과 함께 4000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다. 각 나라의 문학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이 담겨 있다. 그 중 인도라는 나라의 문학은 어떨까? 긴 역사와 함께 많은 인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의 문학 이야기를 우리학교 인도어과 김우조 교수에게 들어보고자 한다.

인도 문학이란?

김우조 교수는 30여년이 넘게 인도에 대해 연구해왔다. 김 교수는 특히 인도 문학을 연구하는 이유로 “문학은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최고 단계에 있는 것이며 예술적으로 형상화 된 것”이라며 이어 “문학 속에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녹아있어 언어를 배울 때도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가 많고 넓은 땅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며 각 민족마다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 인도 문학은 그 수많은 언어들과 종교·사상으로 이뤄진 문학이다.

김 교수는 인도 문학의 특별함으로 먼저 그 방대함을 꼽았다. 김 교수는 “지금 알려져 있는 문학들은 산스크리트 문학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며 “산스크리트 문학이란 고대 인도의 공통 문장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문학으로 인도 문학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스크리트 문학 외에도 장르와 작품이 셀 수 없이 많아 주류가 아닌 문학들이 많다”고 언급한 뒤 “그런 문학들을 더 연구한다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일이 될 것 같아 인도 문학이 요즘 더 흥미로워졌다”고 덧붙였다.

카스트 제도가 문학에 끼친 영향

인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카스트 제도일 것이다.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간 인도를 지배한 신분제도며 구유이었다. 피부색과 직업에 따라 그 신분이 정해지는데 크게 △브라만(승려 계급)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사(상인) △수드라(천민)로 나뉜다. 최하층 계급인 수드라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가촉천민이 있다. 요즘은 이들을 억압받은 자라고 불러 달리트라고 부른다. 김 교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해 “현재는 법적으로 폐지된 상태지만 아직도 인도인의 일상과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문학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대 문학은 브라만 계급이 중심이 돼서 내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고대 문학의 주를 이룬 것이 앞서 언급된 산스크리트 문학이다.

중세 시대의 주요 문학으로는 박피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래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학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카스트 제도의 네 계급에서 세 계급만 해탈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믿음과 전혀 다른 박피 사상이



▲ 김우조 교수의 연구실에는 인도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

등장했다. 신을 사랑하면 해탈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이들이 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박피 문학은 이로부터 알 수 있듯 이러한 박피 사상에서 온 문학이다. 이 사상에 따라 14,15세기에는 달리트들의 문학이 등장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서는 사회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교수는 “1990년대부터는 달리트들의 문학이 성행했으며 이 문학의 특징은 이전의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힌두교에 대한 반발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논문 따르면 달리트 문학은 ‘자신에 의한, 자신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또한 처음 달리트 문학이 등장한 뒤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는 대부분 도시의 빈민이나 농촌의 외곽지대에 사는 낮은 계급의 하인들, 청소부 등을 부모로 둔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글 속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온 모욕, 저주, 학대, 억압 속에서의 삶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토로했다.

인도 여성상의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인도는 계급에 따른 차별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도 만연했다. 여성 차별은 1961년에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성의 결혼 지참금 제도 등 아직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원래 고대 시대에는 모계사회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들의 힘에 의해 가부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를 강요하는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가치 세계를 세우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을 일으켰다. 그 중 하나가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들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여성 운동이었다. 김 교수는 “독립 이후 인도에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와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위한 많은 법이 통과됐다”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변화했으나 많은 여성들의 삶이 바뀌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의 지위가 변화한만큼 문학에서도 여성이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 문인들은 억눌려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김 교수는 그 과정에서 여성 작가들이 새로운 여성 인물을 창출해내기보다는 남성들이 쓴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적 여성상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논문을 통해 설명했다.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

김 교수는 인도 문학만의 또 다른 특별함으로 단절이 없는 역사를 꼽는다. 4천여년의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도 문학에는 인도가 거처온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 김 교수는 한 예로 “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됐는데 인도 문학에도 그 상황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말했다. 독립으로 인한 기쁨도 나타나 있지만, 정치가들의 이기심과 힌두교의 이슬람교의 대립 등 분리 독립의 원인까지 모든 것을 문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인간은 특수하지만 보편적이기에 우리는 외국 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 말했다. 이어 인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며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인도라는 나라는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글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사진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김우조 교수님 논문〉

- 인도 독립 50년 - 문학: 독립 50년과 인도문학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3권 0호, 1998 pp.131-155
- 인도의 사상과 종교; 수르다스의 『수르사가르』에 나타난 박피사상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11권2호 (2006), pp.33-62
- 인도의 종교와 종교갈등 (1); 자이시의 『빠드마와트』에 나타난 인도(힌두) 문화의 수용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9권 2호, 2004 pp.53-79
- 옴쁘라까슈 발미끼의 자서전, 『주탄』(Joothan)에 나타난 달리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14권 2호, 2009 pp.143-174
- 힌두근본주의와 인도의 여성: 여성 정체성 정책과 사회문화적 적용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8권 2호, 2002 pp.167-199
- 인도 정치와 여성 2; TV드라마 ‘라마야나’와 인도정치 그리고 여성 - 힌두근본주의의 부상(浮上)을 중심으로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8권1호 (2003), pp.29-59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유다송 기자

기자생활을 하며 얻은 세 가지



대학교에 입학한지 벌써 3년이나 지나고, 꿈도 없이 지나다 뒤돌아보니 이론 것이 없었다.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다. 뒤늦게 무엇이든 해보자는 생각으로 평소 관심 있던 기자라는 직업을 경험해 보고자 외대학보에 도전했고, 3학년 2학기라는 비교적 늦은 때에 기자 생활은 시작됐다.

낮에는 취재를, 밤에는 과제와 기사를 쓰며 하루는 뻥뻥해졌다. 바쁜 학교생활과 기자 일을 병행하다보니 내가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다니는지 기사를 쓰러 다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잠 못자고 글을 만들어내야 하는 기사 마감 날과 다음 날 이어지는 조판 작업에 익숙해 질 때까지 쉽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들은 나에게 세 가지 확실한 보탬이 됐다.

학업과 기자 일을 병행하다보니 나에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했다. 그리고 23년간 써보려고 마음만 먹고 사용해 본 적 없던 다이어리를 마련해 꼼꼼하게 적어놓고 계획에 따라 생활 했다. 덕분에 그날 할 일과 안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하루를 정리하고, 일주일 일을 미리 보고 부지런해 질 수 있었다.

둘째,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됐다. 최근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 3장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써야 했다. 어느 과제물과 다르게 잘 쓰고 싶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량을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했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니 글 쓰는 습관이 들여져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했던 말을 또 쓰고 글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나의 고질병이었는데 그런 실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자리에 뭘 써야하는지 체계가 잡히고, 실수를 하면 내 잘못을 지적해주던 선배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평소 소심한 탓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낯을 가려 전화 취재만 하곤 했다. 이번 호에 우리학교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던 중 장애 학우 인터뷰가 필요했고, 역시 전화로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분께서 할 말이 많으니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 해 주신 덕에 처음으로 대면 취재를 하며, 좀 더 자세한 취재 내용까지 얻을 수 있었다.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며 대면 취재의 재미를 느꼈고, 얼굴보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는 재미를 기대하게 했다.

기자생활이 항상 즐겁다고는 말 할 수 없다. 기자 생활을 해내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노력을 주고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받고 있다. 힘든 만큼 얻어 내는 것에 대해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

어깨너머 듣는 교양

이현숙 (정부와 여성참여 강의)

정부와 여성참여

당신은 '정부와 남성참여'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사회 전반에서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성비를 보면 19대 선거에서 국회의원의 성비는 남성은 84.3% 여성은 15.7%으로 5배가 넘는 차이를 갖고 있다. 혹자들은 성비 차이가 많이 나는 특정 직업군들이 있듯이 여성들이 정치에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여성들의 무능이 아닌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되었다. 역사를 보면 시민혁명 이후 참정권을 가장 늦게 보장받은 계층은 여성들이었다. 여성정치 운동의 근원지인 프랑크푸르트 여성 참정권은 1946년에야 인정됐다.

하지만 변화는 많았다. 우선 UN을 비롯한 각국에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큰 변화가 있었다. 80년대에는 여성 정책의 초점이 보호여성에서 일반여성으로 확대되는 것에 그쳤다면, 90년대부터는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전환됐다.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여성리더들이 등장했다. 3번 연속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리더쉽과 정치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

켈 총리를 비롯해 여성수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적극적인 태도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 평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다.

정부와 여성참여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부의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다. 몇몇은 이 강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에 대두된 '여성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여성인권'과 '남성인권'이라는 말이 편견을 만든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여성과 남성은 본디 다른 존재임에 틀림없다. 여성은 아직 사회적 약자고 여성인권이라는 것은 보장돼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발전도 도모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정책들이 여성 인권신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남성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는 데 있다. 이는 한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고 해서 옆의 아이가 먹고 있는 초콜릿을 빼앗아 주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잘못된 행동이 옆 아이를 울리듯이, 잘못된 정책은 오히려 성별 간의 갈등만 유발시

킬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신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절대 비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모두의 인권을 지켜주고 신장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가 그것이며, 몇 년 뒤 이 과제는 당신의 몫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은 무척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참정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성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정책은 주민과 국민이 있는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의 가장 큰 바람은 훗날, '정부와 여성참여'라는 강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강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이미 여성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남녀 구별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문제가 해결된 사회에서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는 정부와 기업에서의 여성 복지는 질적으로 향상 될 것이고, 사회적 인식과 시각 역시 차별적이지 않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강의가 사라지기 위해 필자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일시
정지

아름다운 장터 플리마켓으로 놀러오세요!



▲ 입던 옷, 읽던 책, 쓰던 물건을 모아 마련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장터. 손님은 저렴하게 사서 좋고 주인은 기부해서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량 치고 가재 잡는 아름다운 장터 많이 애용해주세요.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지나호를 말한다

나준영(영어 14)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너를 사랑한다!'는 외침 그리고 용기

외대학보 2학기 독자위원으로 글을 열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 칭찬은 때로 감언이설이다. 진정한 친구일수록 날카로운 충언도 아끼지 않는 법이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꾸짖음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듯이 우리 독자위원은 학보에 대한 애정으로 비평에 임하려 한다. '비난'이 아닌 '비판'이요, 우리 학보를 사랑한다는 외침인 것이다.

지난 974호 역시 학보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이 다양해졌다. 12면은 인터뷰이(interviewee)의 선정과 내용면에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8면에 배치된 TV 예능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획 기사와 함께 본지 기자들의 개인 칼럼이 참신했다는 호평이 있었다. 또한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회 인식의 '편향성'이 비교적 완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독자 다수의 공감과 이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대학보도(3-4면)에서 기사의 내용이 중복되고 글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지루하다. 7면의 기사는 해외를 다녀온 당사자의 경험이 기자

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기술돼 그 생생함이 전달되기에 부족했다. 8면 예능프로그램 기사는 그 시도는 참신하나 함께 제시된 통계의 목적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보도 내용에 있어 성의는 부족해 보인다. 그저 구색을 갖추려는 시도가 안타깝다.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지면 편성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각 단과대학의 홍보 국장을 객원기자로서 학보에 기고하도록 한다면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내 언론의 본분은 결국 학생과 닿아있다. 기업체와의 양해 각서 체결과 특성화 사업, 심지어 통학버스의 교체에 관한 기사보다도 '후기 학위수여식' 관련 기사가 작고 초라하게 편성된 점은 학보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넘어 일말의 분노마저 일게 한다.

영화 '명량'이 크게 유행하면서 충무공의 리더십과 함께 작품 속 여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개선을 위한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학보의 발전은 곧 필연이다.

지나호를 말한다

주희진(인문 12)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외대학보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번 974호에서는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소재들이 많았다. 백년관 개관, 성직지침 변경, 학사제도 개편, 고(故) 김홍배 박사의 동상 설치 등 우리 학교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들과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1면에 실린 학사제도 개편에 대한 기사는 학사제도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변경하게 된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기사의 소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이 오로지 글로만 제시돼 가독성이 다소 떨어졌다.

2면에 실린 고(故) 김홍배 박사 동상 설치에 대한 기사에서는 동상 설치 논란의 시작부터 동상 설치 과정, 그리고 동상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하지만 기사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학교, 재단과 학생의 입장을 균등하게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학생 측의 입장이 학교와 재단 측의 입장보다 더 많이 제시됐다. 이러한 점은 독자에게 동상을 설치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6면에 실린 백년관에 대한 기사에서는 백년관

내부 시설 사진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함께 명시 해줘서 독자들이 백년관 내부의 시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한 각 층마다 어떤 시설이 있는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백년관 내부 시설들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백년관을 이용할 학생, 교수에게 도움 되는 정보였다.

7면에 실린 우리학교 학생들의 여행에 대한 기사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신선한 여행 경험담을 위주로 다뤘다는 점이 좋았다. 8면에 실린 비지상과 예능에 대한 기사는 요즘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는 소재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신문에 실리기에 다소 어울리지 않았다. 외대학보는 우리 학교 내의 신문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면에서도 우리 학교나 학생과 관련된 사회문화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2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는 '국제업무 코디네이터'라는 생소한 직업을 소개해준 점에서 있어서 유익했고 우리 학교 선배의 경험담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고 재밌게 다뤄져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국·부장 고정칼럼

당신들의 손바닥

▲개강호가 발행되고 난 뒤였다. 막 찍어낸 학보가 학교 곳곳에 배달되기 시작할 때마다 늘 그렇듯이 부끄러움, 나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아무도 없는 학보사의 문을 열었다. 이것저것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책상 한 칸에 다른 대학의 학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문득 다른 대학 학보사의 개강호가 궁금해져 접속해본 몇몇 학보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발행이 미뤄졌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어라?'하고 궁금증이 스쳐지나가는 것은 잠시, 만난 적도 없는 기자들이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발행이 미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 설명을 읽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의에서 다른 대학 학보사 편집장들을 만나게 됐다. 다른 대학의 학보를 받아보고, 각 학보사의 사정을 듣다 보니 걱정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씁쓸했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발행이 며칠

미뤄진 학보사들부터 1면 탑 기사를 아예 백지로 발행해버린 학보사까지. 발행일이 미뤄지는 동안 얼마나 속이 탔을지, 백지로 나간 신문을 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얼마나 텅 비어갔을지 기자단의 심정이 상상돼 마음이 아팠다. 본지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당장 지금은 아니라도 언제 또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을지 모르기에.

▲대부분의 학보사가 이렇게 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기자단에게 아주 최소한의 권한만 주어주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대학이 총장을 발행인으로 두고 있고, 총장이 발행권과 배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편집장이 온전히 편집권을 가진 경우도 사실 드물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대부분의 학보사 기자단이 매년 신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소재나 방향, 그리고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가지고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예민한 학내 사안일 때마다 이런 상황은 더욱 더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한다. 발행인이 총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행태가 당위성을 갖는가? 학교에서 예산을 받으면 학교 입맛에 맞춘 기사가 발행돼야 하는 것일까?

▲이는 비단 학보사만의 일이 아니다. 교지나 자치언론 등 대부분의 대학언론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써서 발행했다고 고소를 당한 자치언론, 총장을 비판한 학보사의 기자 해임과 폐지, 재단을 비판한 교지의 회수 사태 등 아주 오랜 기간 대학언론은 누군가에게 입을 틀어막혔다. 대학언론도 언론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언론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디서 예산을 받든, 발행인이 누구든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막고 싶은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없애버리고 싶은 언론이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라. 자신의 눈만 가려질 뿐이다.

사설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듣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누구나 알고 있듯,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으며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음식점, 카페, 지하철, 길거리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최근 가족과의 식사시간에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불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아니, 중독이다.

오래 전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려져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도서관을 제외한 여러 장소에서 책을 들고 독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졌다. 스마트폰과 영상의 시대에 살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단문 텍스트를 읽는 것도 힘들어 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진정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스마트폰 검색 한번이면 알고 싶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굳이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서의 가치는 그 효용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독서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며 개인의 지혜를 함양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매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책은 2천 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필자는 스마트폰의 장점과 편의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가을이 다가온 지금, 우리의 귀하신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독서를 즐기며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독상 수상자를 한 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대학 순위보다 대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몇 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각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 순위에 목을 매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느냐에 따라 대학의 전략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인기가 없거나 평가에 감점 요소가 되는 학과는 통·폐합으로 없애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입학 경쟁률을 올리는 선도학과가 될 것이라며 화려한 이름의 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쏟아붓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런 일이 단순히 다른 대학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학교 또한 대학 평가 순위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국인 교원과 학생 비율, 교수 1인당 학생 수, 국제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순위를 올리고자 했다. 입학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학교 입시 제도는 수도 없이 바뀌었다.

최근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중앙일보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를 거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사들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대학 평가를 실시하지만 오히려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학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이유다.

우리학교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이제는 언론사의 대학 평가를 거부해야 한다. 상황이 각기 다른 모든 대학들을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려고 드는 대학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대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침대가 작아 다리가 튀어나오니 다리를 잘라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학 평가의 획일화된 기준에 우리학교를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다른 모든 대학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외국어대학교라는 우리만의 색깔이 있다. 이제는 언론사가 세우는 대로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보다, 우리의 특색을 살리면서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자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캐너며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장 최소영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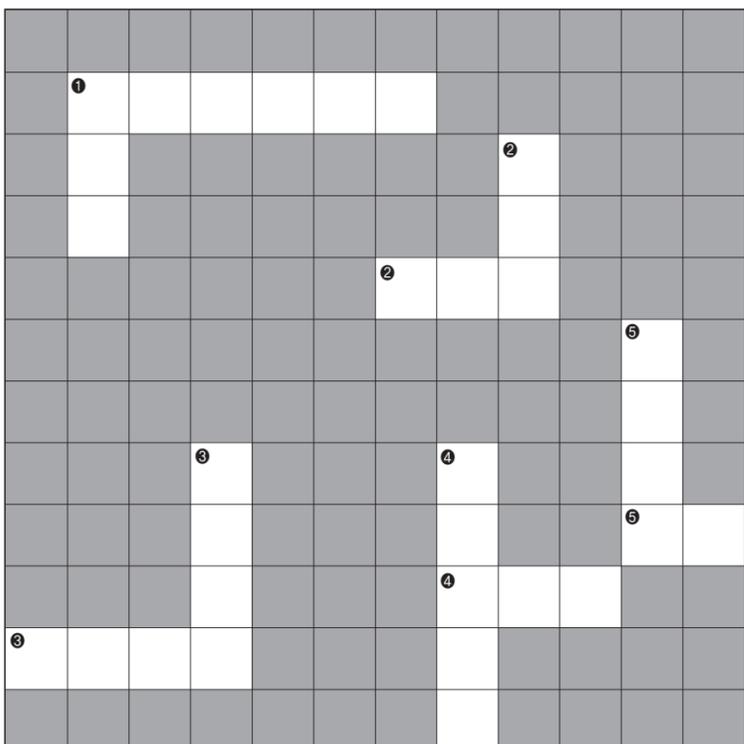
www.oeda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만평



십자말풀이



가로

1. 이번 우리학교 수시모집에 1279명이 지원한 학과는 미디어000000학부이다. (1면 참조)
2.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요즘은 000라고 부르며 '억압 받은 자라는 뜻이다. (9면 참조)
3. 우리학교 GTEP사업단이 이번 전시회에서 협력한 국내 기업은 0000이다. (4면 참조)
4. 우리학교 GTEP사업단이 참여한 전시회는 중국 0000에서 열렸다. (4면 참조)
5. 우리학교와 제휴를 맺은 항공사는 00항공이다. (4면 참조)

세로

1.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할 때 걸리는 시간을 000타임이라고 부른다. (4면 참조)
2. 인도의 뿌리 깊은 신분 제도의 이름은 000제도이다. (9면 참조)
3. 김우조 교수가 소속된 학과는 0000이다. (9면 참조)
4.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나침술 군은 터키에서 000000으로 교통편을 해결했다. (5면 참조)
5. 장애인 학생들에게 복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도우미 학생을 뽑아 몸이 아픈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곳은 장애학생0000이다. (6면 참조)

※꼼꼼히 푸셨나요?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계정 친구 추가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해 당첨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의 주인공

권영찬 (영어 88)

방송인·유명강사·사업가·재테크 및 마케팅전문가 등 그에게 붙는 수식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든 일이 승승장구해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다가 한 순간 낙락으로 떨어져 인생의 씁쓸함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불행은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라 말한다. 자신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항상 초심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아픈 경험을 딛고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자.



Q. 개그맨, 사회자, 기업의 대표, 유명강사 등 직업이 정말 많아 어떻게 불러야 할 지 모르겠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업이 궁금하다.

제일 좋아하는 직업은 개그맨이다. 개그맨으로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명강사 권영찬이 좋다. 요즘 강의를 나가면 세월호 등 많은 사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IMF위기 때의 박세리 선수처럼 힘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재기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취업난과 창업난으로 괴로워하는 학생들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는 유명강사 권영찬으로 매월 10회에서 15회 강연을 나간다. 2014년 삼성전자 대표강사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는 더 많은 스타강사의 발굴과 강연 기회 마련하기 위해 ‘권영찬 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알앤디클럽’이라는 웨딩컨설팅 회사의 공동대표직을 맡아 후배들의 결혼식을 도와주고 있다. 작년에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가정 6쌍의 결혼식을 후원했다. 그는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가깝다”며 “도움을 주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권영찬은 마케팅에도 능해 6개 회사의 총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마케팅 아이디어를 주는 일을 주로 한다. 담당하는 회사는 프랑스 명품 화장품인 ‘콜랑’의 국내유통을 담당하는 ‘뷰티앤아카데미’와 광명기 회사 ‘에코파트너즈’ 등이 있다.

“차에 명함통이 6개가 넘는다”며 “직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인 줄 안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많은 직업 중 ‘권영찬 닷컴’의 대표로 소개한다고 한다.

Q. ‘권영찬 닷컴’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권영찬 닷컴’은 능력 있는 강사들을 발굴해 강연의 기회를 열어주는 곳이다. 단순히 수익을 위해 유명 강사들만 영입하는 일반적인 에이전시와는 다르게 가능성 있는 강사들을 찾아다니고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일을 주로 한다. 사실 ‘권영찬 닷컴’의 설립 배경은 조금 독특하다.

이 회사는 처음에 1인 기업으로 시작했다. 예전에 비서나 직원이 있을 때는 업무가 바쁘면 방송이나 강의 요청이 들어와도 일단 연락 처만 받고 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러한 경우 섭외자로부터 “요새 잘나가더니 바쁜 척을 한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험에서 비롯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권영찬 닷컴’이라는 1인 기업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강의 섭외가 많아 일정이 겹치면 주변에 좋은 강사들을 영입해 그들에게 강의 기회를 주면서 회사를 키워갔다. 현재 소속 강사는 이호선 교수, 김동성 코치, 앤디 황 교수 등 많은 유명 인사들과 15명의 개그맨 겸 스타강사들이 있다. 나중에는 강사의 수를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 엔터테인먼트의 기능도 하는데 이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기독교 신자 후배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여러 행사를 주선하다보니 나중에는 큰 행사 기획도 하는 회사가 됐다.

현재 여러 기업의 대표로 있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순탄치 않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적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학시절

오랜 연인과의 이별로 큰 시련을 겪었다. 한 여자와의 연애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이별은 너무나 가혹한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그는 삶의 전환점을 찾기 시작했다.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개그맨 시험을 봤다가 덜컥 합격했다.

이후 사회자로 일하며 방송인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사회자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개그와 멀어졌고 이후 방송에 목숨 걸기보다 방송 그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 또한 마케팅에 재능이 있어 환경희 스팀청소기와 엔유씨전자 흡소핑 등의 총괄 마케팅이사를 맡으며 연봉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는 2005년 성폭행 혐의로 37일간 구치소 생활을 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연예인 권영찬은 모든 것을 잃었다. 2006년 겨울 구치소에서 나와 마케팅과 방송으로 재기하는 듯했으나 2007년 12월 촬영 중이던 세트장이 무너져 왼쪽 발목과 뒤꿈치가 복합골절 되고, 척추 3, 4번이 골절돼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그 후 투자 실패로 30억이라는 돈을 날렸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원치 않는 이혼도 했다.

하지만 권영찬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살기로 마음먹으니 희망이 보이고 길이 생겼다. 구치소에서 나와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0년이 흐른 지금 그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Q. 박지성 씨, 환경희 스팀청소기 등 마케팅에 매우 능하다 알고 있다. 두 번째 인생의 성공 핵심은 초심도 있지만 특독 튀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마케팅 전문가로도 유명한데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케팅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케팅의 주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다. 예를 들어 빵을 원하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고 몇 백만 원짜리 정장을 줬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장을 갖다 버리거나 빵과 바꿀 것이다. 결국 그 선물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중요한 마케팅 원리이다.

또 다른 핵심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2006년 겨울 무죄를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나와 2007년 3월에 결혼했다. 그때부터 돈에 상관 없이 최소비용·최대효과만을 생각하며 마케팅에 빠지게 됐다. 얼마 후 친분이 있던 박창모 디자이너로부터 연예인 토탈케어 회사 대표직 제안을 받았다. 대표직 수락 후 바로 4~5억의 수익을 만들었는데

데 이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몸으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변영했던 회사는 후에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파산 위기에 처했다. 40명이 넘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대표의 자존심을 버리고 건물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 열심히 아이디어를 냈고, 지인들에게 회사 창고의 남은 포피 가운을 팔아가며 직원들의 월급을 줬다.

이 모습을 본 부산 출신 메이크업 실장이 나를 2009년 대중상영화제 총괄마케팅실장으로 추천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전의 경우 다른 대기업들은 대중상영화제를 하나의 행사로 보고 성의 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왔다. 나는 이들과 달리 대중상을 하나의 인물로 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대중상영화제를 45살 먹은 사람으로 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결국 대중상영화제 총괄마케팅이사로 승진해 2012년까지 업무를 담당했다.

초기에 언론에서 ‘어떻게 개그맨 출신이 마케팅이사를 하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마케팅이사는 없었다’고 칭찬했다. 자신이 서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인 의식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긴다.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Q.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흥미롭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바람이 궁금하다.

더 열심히 살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성공해서 강연 사업에 힘쓰고 장학 재단을 세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살면 연건가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성공만을 바라면서 뛰지 말았으면 한다”며 “기쁨은 그 상황을 즐기며 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뷰 당시 그는 서산시청에서 강연을 하고 막 올라온 길이었다. 그래서 강연 시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셋노란 바지가 눈에 띄었다. 강연을 할 때면 “사람들에게 좀 더 밝은 에너지를 주기위해 노력한다”며 웃는다. 그의 맑은 웃음처럼 앞날에 밝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



▲ 권영찬이 다일복지재단의 홍보대사가된 기념으로 받은 위촉패이다.